

한국의 여성문학, 그 정체성의 확립 과정

권 영 민*

1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 과정에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여러 용어 가운데 ‘여류문학’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문학의 창작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존재의 성적 차별성을 특이하게도 강조한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라는 지적 행위에 끼여 든 여성의 존재를 유별나게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이 지시하고 있는 의미 영역에는 창작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글쓰기라는 것이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사회 문화적 현상이었음을 당연시하는 고정 관념을 밑바닥에 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여류문학’이란 남성 중심적인 문학관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한국문학의 어디에서도 ‘남류문학’ 또는 ‘남성문학’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다. 문학이라는 것이 으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류문학’은 한국문학의 중심부에 자리하지 못한 채, 언제나 일종의 맛보기로만 언급되어 왔으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 문학적 성과도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여류문

*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학'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한국 문학 연구의 편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여류문학'은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여류'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영역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었던 것이다.

'여류문학'이라는 말이 등장한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편파적인 사회적 고정 관념이 있었다. 우선 모든 여성들은 공적인 노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간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통념이었다. 특히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해 비활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들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삶의 조건을 수용하고 가정 안에서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강요받아 왔으며, 그 사회 활동이 남성에 비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와 관점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존재와 그 기능은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보다 우월하게 인정되었던 것이다.

'여류문학'이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초창기 여성작가로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박화성은 이 말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표명한 적이 있다. "제발 여류문인은 여자다운 작품만 써라, 여자로만 쓸 수 있는 작품을 써라, 이 따위 소리를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쓰는데 그다지 엄격하게 성별을 해서 말할 게 무엇입니까?"(『삼천리』, 1936.2) 이러한 박화성의 주장은 여류 작가 또는 여류문학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문단의 성적 차별 의식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박화성이 여류문학이라는 말에 붙어 다니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류문학이라는 말은 창작 주체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는 하등 관계가 없이, 문단적 존재로서의 여성 문학가의 희소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문학적 경향 자체에서 여류적인 특성을 여성의 개인적인 정서와 내면 세계를 섬세한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류'라는 것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말해 준다. 그러므로 박화성이 여류문학

이라는 말을 거부한 것은 여류라는 말에 붙어 있는 이러한 편향된 관점을 거부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문학의 남성 중심적 경향, 또는 남성 중심으로 문학을 보는 태도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다양한 경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할 경우, ‘여류문학’이라는 말은 이미 어떤 의미도 인정받기 어렵다. ‘여류문학’이라는 특정 집단의 특정한 문학이 별도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씌어진 문학과 여성에 의해 씌어진 문학이 함께 한국문학을 이루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창조적 주체를 그 성적 차별성에 의해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성문학’의 존재 의미를 따져야만 하며, 그 여성적인 것의 실체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계몽기적 단계가 마감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부터 여성문학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속박을 당연시하였던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그 존재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이 시기부터 문단에는 많은 여성 작가와 여성 시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한국문단에서 ‘여류적 속성’으로 지적되어 온 문학의 경향을 벗어나 버리기 시작함으로써 각각 자신들의 문학적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족의 해방과 그 감격,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이 문학에 내재화하는 가운데 이들 여성 문학인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사회적 연관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의 사회참여가 주장되고 역사의식에 근거한 민족문학의 전통에 대한 재인식이 촉구되는 동안, 이들 여성 문학인들은 현실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문학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문학의 문화적 창조력의 확대는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

기 시작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문학이 포괄하고자 했던 사회적 현실과 문화적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960년대의 작품으로 소설가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1964)이라는 소설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이야기의 전개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개의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이라는 이름의 일상의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전장’이라는 이름의 갈등과 투쟁의 공간이다. 일상의 공간은 삶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투쟁의 공간은 이념과 가치가 중시된다. 생존의 가능성과 가치의 삶 사이에서 인간에게는 어떤 삶의 방식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바로 소설 『시장과 전장』의 주제를 묻는 문제가 된다.

이 작품에는 인테리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사범학교 출신으로 교사 발령을 받아 백천에 내려가 살고 있는 동안, 이 여성 주인공은 6.25 전쟁을 맞게 되고, 그 남편이 부역자로 몰려 죽게 되는 비극을 체험한다. 그녀는 남은 가족을 이끌고 전장의 현장에서 목숨을 이어간다. 이 삶의 고통스런 과정은 전장에서 빚어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갈등하는 ‘시장’ 그 자체가 되고, 여주인공은 스스로 그 시장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문제 인물은 전장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지리산 빨치산으로 변신하는 공산주의자인 기훈이라는 남성이다. 그는 생존의 문제보다는 이념의 중요성을 믿는다. 그는 가치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바로 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가족에 둘러싸여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스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일상의 삶에는 역사로서의 시간이 없다. 오히려 덧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뿐이다. 개인의 정서 내부에 회귀하는 이 시간의 반복이야말로 ‘시장’의 주인공이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전장’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찾아 나선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의 안착이란 일상에 대한 타협에 불과하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탐색해야 하

며, 그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소설 『시장과 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현실과 여성적인 세계의 관련성은 물론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이념적인 공간으로서의 전장과 남성적인 세계의 관련성에 대한 대립적인 구도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시장과 전장』은 전장이라는 남성만의 고유 영역이 지나는 파괴와 약탈과 맹목적인 이념의 횡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성의 영역인 시장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장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간다. 그렇지만, 시장은 새로운 삶을 도모하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수단을 모으고, 결합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 공간의 한복판에 여성이 자리한다. 여성의 삶이 이처럼 남성적인 것과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 같은 소설적 구도가 역사적인 공간으로 확대된 것이 대하소설 『토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게 된 1970년대부터 여성적인 것의 가능성을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이 많은 여성 문학인들에 의해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화주의적 여성문학은 이미 폭넓게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한국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 문학인들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가치관의 회복을 주제로 내세우기도 하고, 분단현실의 문제성에 도전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동의 현장을 찾아가 부당하게 홀대당하고 있는 근로 여성들의 처지를 문제삼기도 한다. 물론 치밀한 묘사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추적하고 있는 작품도 많이 있다.

1970년대 이후 문화주의적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 박완서를 들 수 있다. 박완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소설 『도시의 흥년』(1977)은 중산층의 삶의 양식을 소재로 하여 세태와 풍속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박완서가 이 소설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상적 현실은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타락한

공간이다. 박완서는 식민지 상황과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의 윤리와 가치 규범이 전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가족주의적 윤리관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물질주의와 출세주의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현실은 박완서의 소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소설 『도시의 흥년』의 작품 구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가족 제도의 붕괴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의 붕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의 현상은 남성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남성중심적인 가족 제도가 전쟁이라는 남성적인 속성에 의해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의 우두머리로서 남성의 권위가 무너지자, 바로 그 권위주의적 행태가 왜곡된 채 그대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박완서는 왜곡된 사회 변동으로 인하여 고유한 삶의 관습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는 가족의 해체 문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성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되물게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도덕적 리얼리즘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여성주의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현실을 통해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되살리게 해주는 박완서의 도덕적 상상력은 독자들에게도 매우 설득적이다. 그 이유는 박완서의 소설적 테마들이 대부분 대중적 정서로 일반화될 수 있는 도덕적 비판의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범절과 풍속에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지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박완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윤리가 붕괴되고, 소중한 인간적 가치가 점차 소멸되는 것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생활의 범절과 풍속에 관한 박완서의 애착은 부박한 현실의 물질주의적 경향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엄마의 말뚝」과 같은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여성적인 가치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완서는 풍속의 파괴와 가치관의 왜곡을 비판적으로 그

려내면서도, 역동적인 현실의 변화와 그 요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가 문화주의적 여성문학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3

이제 새로운 2000년대를 생각할 때, 한국소설의 가능성은 여성적 글쓰기의 확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의 문단에서는 새로운 여성문학인들이 남성적 글쓰기의 주류를 전복시키는 가변적인 퍼스펙티브를 통해 문학의 여성주의 경향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세대의 작가들은 대개 자기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공통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시각은 각각 유별나다. 집단적인 이념에서부터 개인적인 내면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주고 있는 이들 소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서사적 자아의 형상이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자아의 표현 욕망을 기저로 하는 자전적인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야기의 서술은 회상의 방식이 주류를 이루며, 그 회상적 주체가 '작가'이다. 이런 소설들은 성격화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정적인 성격의 틀을 깨치는 경우가 많다. 소설에서의 인물 설정은 당연히 사회 계급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문제삼는 리얼리즘의 소설에서는 이 같은 방법이 항상 리얼리티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원리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는 인물의 사회 계급적 성격을 상징해 줄 만한 어떠한 징표도 표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인물의 존재와 사회적 계급 사이에 애매한 긴장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다. 이들 소설의 인물들은 사회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인물의 설정은 소설적 서술의 기법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우선 행위의 인과적 논리가 철저하게 거부되고 있으며,

구성의 원리라고 하는 고전적인 소설적 규범도 무너지고 있다. 그러므로, 플롯의 완결이라는 개념은 이들 소설에서 통하지 않는다. 상황의 끊임없는 변화와 그 내밀성을 천착하기 위해 이야기는 해체되고, 잡다하게 변화하는 현실의 임의적인 환상들이 닥치는 대로 그려진다. 이러한 기법은 경험적 현실 세계의 다층성과 가변성, 그리고 그 불연속적인 자의성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고안으로 생각된다.

한국 여성문학에서 여성주의적 경향 또는 여성주의적 가치의 문학적인 탐색은 이미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른바 '여성적 글쓰기'의 새로운 미학적 도전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달리 말하자면,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글쓰기 방식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통적인 서사 양식에서 강조되어온 플롯의 법칙성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성격의 해체는 당연한 현상처럼 인식된다.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사건이나, 내용의 핵심이 되는 주제도 여지없이 해체된다. 객관적인 현실의 전체적인 인식을 중시했던 서사의 방법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야기는 언제나 부분적인 것들로 짜여진다. 이 부분성과 단면성들이 오히려 전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 문학은 남성 중심의 이념에 의해 구축된 추상적인 질서를 전복시키면서 다양한 현실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인간의 현실은 합리적인 비전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연적이며, 비논리적이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주의는 일종의 인식론적인 함정을 술하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주의 문학은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한국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문학에 있어서 여성주의가 남성 중심의 글쓰기에 대한 이념적인 대립항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여성주의는 아직도 술한 내부의 적과 외부의 도전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